

뇌졸중 입원 환자의 작업치료로 인한 회복 과정 체험: 파시(Parse) 인간되어감 연구방법 적용

박민경 · 송아영 · 김수경

이 연구의 목적은 뇌졸중 환자가 입원 중 작업치료로 인한 회복 과정에서 겪는 경험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자는 입원 중인 뇌졸중 환자 9명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간 3회에 걸쳐 대화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및 분석은 파시(Parse)의 인간되어감 이론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뇌졸중 입원 환자의 작업치료로 인한 회복 과정 체험에 대한 네 개의 핵심 구조는 1) 작업치료를 통한 기능적 회복, 2) 독립적인 일상생활, 3) 긍정적 마인드로의 변화, 4)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나타났다. 구조적 전환은 환측의 기능 향상을 통해 독립성이 증진되어 정신적 성장을 하면서 희망과 끈기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념적 통합은 상상화, 가치화하면서 변형성과 강화성의 인간되어감 과정으로 표현되었다. 뇌졸중 입원 환자의 작업치료로 인한 회복 과정 체험의 의미는 뇌졸중 환자들에게 스스로의 한계를 초월하고 내면을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를 통해 작업치료가 뇌졸중 회복의 전문 영역임을 증명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주제어: 뇌졸중, 인간되어감 연구방법, 작업치료, 회복과정

박민경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작업치료학과 석사졸업 dodomemory@naver.com(제1저자)
송아영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작업치료학과 박사과정 thdayoung@naver.com
김수경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부교수 kskot@konyang.ac.kr

1. 서론

뇌졸중은 생활수준의 향상, 고령화의 진행과 더불어 현대의학의 발달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두 번째 사망원인으로 나타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07). 뇌졸중은 흔히 운동장애, 인지장애, 언어장애, 연하장애를 동반하며, 운동 기능의 마비, 비정상적인 근 긴장도, 근 약화, 협응 문제 등의 장애로 인한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제한을 경험하게 된다(Shumway-Cook & Wollacott, 2006). 뇌졸중 환자 중 85% 이상은 편마비를 경험하고 그 중에서도 69% 이상의 환자들은 상지기능의 손상을 경험한다(Luke, Dodd, & Brock, 2004; Wolf, Catlin & Ellis, 2001). 뇌졸중 환자의 편마비나 상지기능의 손상은 일상생활활동을 수행하는 것과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이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환자 가족들에게도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Dijkerman, Ietswaart, Johnston, & Macwalter, 2004; Nichols-Larsen, Clark, Zeringue, Greenspan, & Blanto, 2005).

일상생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지의 기능에서 소근육 운동 기술(fine motor skill)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Shumway-Cook & Wollacott, 2006), 뇌졸중 후에는 조작능력의 기능이 떨어지고, 상지의 기능적인 사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일상생활활동을 하는데 제한을 받게 된다(Lang, Wagner, Bastian, Hu, Edwards, Sahrman, & Dromerick, 2005).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 환자의 상지의 움직임은 독립적인 일상생활활동 수행능력을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작업치료의 목표이다(조영남, 2005). 작업치료를 통한 회복은 일상생활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며, 상·하지의 기능 향상에서도 막대한 도움을 제공하기에 이에 따른 재활 영역에서의 중요성도 강조되어야 한다(Carr & Shepherd, 2003; Madden, Hopman, Bagg, Vernet, & Challaghan, 2006; Shumway-Cook & Wollacott, 2006).

뇌졸중의 회복은 신경 재연접을 통한 자발적인 신경학적 손상의 회복으로 정의되는 뇌의 가소성과 감각 입력과 반복적 훈련을 통한 기능적 회복으로 나타날 수 있다(Johansson, 2000). 회복이란 불가능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가 잔존한다 하더라도 양질의 삶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Madden et al., 2006), 신체적 뿐만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직업적인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 초점을 맞춘 재활을 통해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생활양식으로 회복될 수 있다. 환자 자신의 삶의 의지를 가질 때에 회복의 경험이 가능하므로 환자가 회복 과정 속에서 느끼는 심리적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주관성과 경험을 존중하는 연구가 필요하다(하주영·박형숙·이상주·전정해·조호윤·지영주, 2010).

뇌졸중 환자의 회복과 관련된 질적연구의 선행연구로는 근거 이론을 적용한 중년기 뇌졸중 남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강현임·이순영·성명숙, 2009)와, 청장년층 뇌졸중 환자의 회복 경험(하주영 외, 2010)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의 연구 참여자가 입원 환자가 아닌 외래 환자이거나, 참여자의 성별이나 연령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뇌졸중 환자가 입원 중 느끼는 회복 과정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데 무리가 있다. 또한 뇌졸중을 대상으로 파시(Parse)의 인간되어감을 적용한 논문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파시의 인간되어감을 적용한 다른 질환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만성정신분열병 환자의 삶 체험, 만성정신분열환자의 가족 체험, 말기 암 환자의 희망체험, 혈액투석 환자의 체험 등 뇌졸중이 아닌 다른 질환을 대상으로 한 논문들이 있었다(이상윤·이경희, 2003; 이옥자·최영숙, 2007; 김정미, 2010; 위옥연, 2004).

이에 이 연구는 파시(Parse, 1992)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을 통해 뇌졸중 환자가 입원 중 작업치료로 인해 경험하는 회복 과정에서 겪게 되는 주관적인 삶의 변화로 인한 실제 개인의 체험 의미와 구조를 파악하고 회복을 통해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Lee &

Lee, 2002). 또한 재활치료와 재활서비스 접근 안에서 환자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작업치료에 대해 어떤 마인드를 갖는지 그것들이 결국 뇌졸중 회복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1) 파시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

파시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은 연구자가 참여자와 진정으로 함께하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참여자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비구조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을 시작하고 참여자의 경험에서 주요 내용을 추출한다. 참여자의 언어로부터 추출한 주요 내용에서 연구자의 언어로 종합하여 각 참여자의 서술에서 명제를 만들고 핵심 개념을 다시 뽑아내어 추출된 핵심 개념을 생생한 경험의 구조로 종합하는 추출-종합 과정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경험의 구조를 이론과 연결시키는 발견적 해석 과정에서는 형성된 구조를 인간되어감 이론의 구조로 통합하고, 인간되어감 이론의 개념을 사용하여 체험의 구조를 구체화하는 해석과정을 거친다(Lee & Lee, 2002; 이정숙·이옥자·고명숙, 2002). 이 연구는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그 환자들의 작업치료로 인한 회복 과정 체험을 알아보기 위해 파시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Parse, 2001b; 2005; 2006)을 적용하여 경험의 구조를 구체화하였다.

2) 연구 대상

이 연구는 대전 Y 재활병원에 내원하고 있는 뇌졸중 환자 9명을 대상으로 '작업치료로 인한 회복 과정 체험'을 가지고 연구자와의 비구조적인 대화를 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삶에 대한 자기이해와 자기수용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자신의

<표 1>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참여자	입상증후	성별	나이	유병기간	MMSE-K
1. 00예	우측 편마비	여	69	10개월	25
2. 00순	좌측 편마비	남	51	7개월	30
3. 00준	좌측 편마비	남	23	12개월	30
4. 00희	좌측 편마비	남	53	6개월	29
5. 00조	좌측 편마비	남	52	7개월	30
6. 00복	우측 편마비	남	55	11개월	27
7. 00종	좌측 편마비	남	52	13개월	30
8. 00제	좌측 편마비	남	46	8개월	30
9. 0유0	우측 편마비	여	61	7개월	30

경험을 진솔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자로 한국형 간이 정신 상태 검사(MMSE-K) 24점 이상으로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치료 과정에 대해서 자신이 인지하고 느낀점을 표현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참여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연구 참여에 대해 거부할 수 있고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신분이 노출되지 않을 것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한 9명의 대상으로부터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다. 참여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는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집하였고 3회에 걸쳐 대화를 하였으며, 각 대화는 30분~1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중복되는 내용이 나올 때까지 진행하였다. 대화 장소는 참여자가 내원하고 있는 재활병원에서 이루어졌다. 참여자는 연구자의 담당 환자로서, 주 3회 이상 정기적인 치료에 임하면서 연구자와 긍정적인 상호 관계를 형성하였다. 이로 인해 참여자는 연구자와의 신뢰관계를 경험하였고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를 위한 질문은 '뇌졸중 입원 환자의 작업치료로 인한 회복 과정은 어떠한가?'라는 개방형 질문으로 선택하였다. 대화 내용은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통해 녹음되었으며, 녹취 내용은 이 연구자가 당시의 언어, 비언어적 메시지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 청취하면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해 직접 필사하였다.

추출-종합과정은 참여자의 체험의 의미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녹음된 대화를 집중적으로 반복 청취하여 기록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을 통해 확인된 구조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삶에 대한 연구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게 한다. 연구자는 녹음된 대화를 잘 듣고 필사본을 주의 집중하여 읽으며 대화 내용을 파악하였다. 파시의 분석 과정을 따라 참여자의 주요 구술 내용을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구술을 연구자의 언어로 종합하였다. 종합된 연구자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언어-예술을 만들었으며 이렇게 추출된 구조로부터 뇌졸중 환자의 작업치료로 인한 회복 과정의 의미에 관한 핵심 개념들을 구조적으로 통합하였다(Parse, 2001a; 2005; 2011).

경험의 구조를 이론과 연결시키는 발견적 해석과정은 형성된 구조를 인간되어감 이론의 구조로 통합하고, 인간되어감 이론의 개념을 사용하여 체험의 구조를 구체화하는 해석과정을 거친다. 구조를 이론에 연결시키는 것은 경험적인 것을 이론적인 것에 연결하는 것이다(Parse, 2001a; 2005; 2011). 은유적 드러남(metaphorical emergings)은 발견적 해석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방법으로, 참여자에 의해 묘사된 체험의 의미 중 시적인 언어로 언급된 구절을 기술하는 것이다(Parse, 2011). 예술적 표현(artistic expression)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표현으로 음악, 은유, 시 등 예술적 형태를 통해 표현하는 방법이다(Parse, 2005; 2011). 이 연구에서는 9명 참여자의 경험을 인간되어감 이론의 개념과 연결하였고 연구자는 총체적인 경험의 느낌으로 참여자들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은유적 드러남과 시를 이용한 예술적 표현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4) 연구의 객관성과 엄격성

이 연구는 유태균(2005)이 번역한 패짓(Padgett)의 5가지 질적 연구 평가 기준에 따라 연구의 객관성과 엄격성 확보하였다. 5가지 기준 다원화, 연구 대상을 통한 재확인, 장기간에 걸친 관계의 형성, 동료 집단

의 조언 및 지지, 감사 자료 남기기를 적용하여 확보하였다.

다원화(triangulation):이 연구는 고정된 하나의 사항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얻고자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뇌졸중 환자의 회복, 그에 따른 변화 등의 국내외 연구 논문이나 참여관찰 등을 활용하여 연구의 결과에서 편향성을 배제시켰다.

연구 대상을 통한 재확인(member checking):이 연구는 참여자의 구술이 타당하고 정확하게 추출-종합되었는지, 참여자에게 자신의 연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이에 9명의 참여자는 자신의 체험과 모두 일치한다고 하였다.

장기간에 걸친 관계 형성(prolonged engagement):이 연구는 최소 6개월 이상 해당 병원에 내원하고 있는 환자로 연구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구자의 담당 환자로 평소 이야기할 때처럼 거짓말이나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의 체험을 이야기함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반응성과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하였다.

동료집단과의 조언과 지지(peer group support):이 연구는 작업치료 전공 교수 3명, 작업치료 전공 대학원생 3명(석사과정)에게 추출-종합한 결과를 제시하여 참여자들로부터 수집한 자료와 대화 내용이 같은 맥락이라는 지지를 얻었으며 이에 전문가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감사가능성(auditability):이 연구는 자료 수집 및 분석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공개하는 감사 자료를 남김으로써 구술로부터 자료의 추출-종합과정, 언어-예술 및 핵심 개념이 제대로 일관성 있게 추출되었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를 받고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3. 연구 결과

1) 참여자의 구술에 따른 추출-종합 과정

가. 참여자 '예'의 이야기

참여자 '예'는 2012년 7월 23일 발병한 69세 뇌졸중 여성 환자로, 우측 편마비(Rt. hemiplegia)로 진단받았다. 발병 초기에는 공동간병인의 도움으로 다인실 병실에서 생활했지만, 현재 간병인 없이 개인생활하고 있다. 그녀의 회복 과정은 작업치료의 동기가 강화되는 과정이다.

① 참여자 '예'의 구술

회복은 좋아지는 거죠... 점점 좋아지는 꿈... 팔도 통증이 와서... 올라가지를 못했지... 통증이 없어지면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한 거지... 이제 혼자 하지... 남한테 도움받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데... 꺼리다가도... 포기를 하는 거지... 처음에는 애들이 와서 해줬어... 이제는 못 오게 해... 내가 할 수 있고... 부담 주기 싫어... 더 열심히 해야 돼... 밥을 찾아 먹을 정도? 되면 집에 가려고... 작업치료... 훌륭했어요... 좋아질 수 있게... 먹는 연습... 직접적으로 해보고... 치료해주니까 좋았지... 처음... 아무것도 못했었으니까... 근데 나를... 이렇게까지 살게 해줬잖아...

② 참여자 '예'의 구술 추출

- i) 회복은 점점 좋아지는 것이다.
- ii) 팔의 통증이 없어지면서 움직일 수 있게 되고 혼자 할 수 있게 되었다.
- iii) 처음에는 애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은 내가 할 수 있고 딸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

③ 연구자 언어

- i) 자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잦은 방문을 기피한다.
- ii) 통증 완화와 기능적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서 작업치료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었다.
- iii) 독립적인 삶으로의 복귀를 위한 작업치료의 동기강화가 되었다.

④ 언어-예술

‘예’의 회복 과정은 통증 완화와 기능적 회복을 경험함으로써 자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독립적인 삶으로의 복귀를 위한 재활치료의 동기가 강화되는 과정이다.

나. 참여자 ‘순’의 이야기

참여자 ‘순’은 2013년 3월 23일 발병한 51세 뇌졸중 남성 환자로, 좌측 편마비(Lt. hemiplegia)로 진단받았다. 현재 간병인 없이 개인생활 하고 있다.. 그의 회복 과정은 정신적 성장을 경험하는 과정이다.

① 참여자 ‘순’의 구술

나도... 환자들도... 가장, 직장, 남편, 아빠, 여러 가지 역할... 회복이라는 것은 이런 역할을 정상화한다는 의미... 육체적인 면보다는... 고민도 하게 되고... 성숙해지고... 삶을 리마인딩 한다고 할까... 살아왔던 것을 되짚어보고... 미진한 점을 개선하겠다는 정신적 성장... 손 자체가 제한... 불편하더라고... 그러다가 혼자 하니까... 속 편해... 작업치료... 상당히 도움이... 치료가... 기다려진다는 거야... 스스로 느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② 참여자 ‘순’의 구술 추출

- i) 회복은 가장, 직장, 남편, 아빠 등의 역할을 정상화한다는 의미이다.
- ii) 육체적인 면보다 살아왔던 것을 되짚어보고 미진한 점을 개선하겠다는 정신적인 성장을 했다.
- iii) 손에 제한이 생겨서 불편했지만, 좋아져 혼자 하니까 속이 편하다.

③ 연구자 언어

- i) 손의 기능적 회복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져 홀가분하다.
- ii) 신체적 기능의 호전보다는 자기성찰을 통해 정신적 성장을 하게 되었다.

④ 언어-예술

‘순’의 회복 과정은 손 기능의 호전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져
홀가분하지만, 신체적 기능의 회복보다는 자기성찰을 통해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과정이다.

다. 참여자 ‘준’의 이야기

참여자 ‘준’은 2011년 8월 29일 발병한 23세 뇌졸중 남성 환자로, 좌
측 편마비(Lt. hemiplegia)로 진단받았다. 현재 간병인 없이 개인생활
하고 있다. 퇴원하고 사회로 나가기 위해 일을 배우러 다니고 있다.
그의 회복 과정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서의 변화되는 과정이다.

① 참여자 ‘준’의 구술

자신과의... 스스로 싸우는 과정이 회복이죠... 하루아침에 병신
된 거잖아요... 왼손이... 마비되었다가... 쓸 수 있잖아요... 바뀌
죠... 처음에는 누가 도와줘야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한
지... 손을... 쓸 수 있게 되니까... 남한테 의지 안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부정적이던 게 긍정적으로... 키보드를 왼손
으로 칠 때? 좋죠... 희망이 생긴 거잖아요... 내 나이... 일하려면...
컴퓨터는 기본이잖아요... 작업치료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영
향을 줬죠... 사회에 나갈 수 있게 됐으니까요... 처음에... 오른손
쓰니까... 왼손이 중요한지 몰랐어요... 컴퓨터를 쳤는데... 왼손이
안되니까 짜증 나는 거죠... 그때 느꼈죠... 작업치료가 얼마나 중
요한지... 왼손이 얼마나 좋아져야 되는지...

② 참여자 ‘준’의 구술 추출

- i) 자신과 스스로 싸우는 과정이 회복이다.
- ii) 왼손을 쓸 수 있게 되어 남한테 의지 안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 부정적이던 것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 iii) 사회에 나갈 수 있게 됐으니 작업치료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영
향을 줬다.
- iv) 컴퓨터 사용으로 왼손과 작업치료의 중요함을 알았으며 일할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

③ 연구자 언어

i) 작업치료를 통해 사회참여가 가능하게 되어 사고방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ii) 컴퓨터 사용으로 환측 사용과 작업치료의 가치를 인식하고, 구직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

④ 언어-예술

‘준’의 회복 과정은 작업치료를 통해 사회에 참여하게 되어 구직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며 사고방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다.

라. 참여자 ‘희’의 이야기

참여자 ‘희’는 2013년 4월 18일 발병한 53세 뇌졸중 남성 환자로, 좌측 편마비(Lt. hemiplegia)로 진단받았다. 현재 간병인 없이 개인생활하고 있다. 그의 회복 과정은 의지와 노력을 통해 회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① 참여자 ‘희’의 구술

회복...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주는 거지...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작업치료를 받다 보니까... 회복의 기미를 느끼는 거지... 노력을 하면 되는 거구나... 좋아졌으니까... 팔도... 처음에는 가망성이 없나... 치료를 받는데 움직임이 느렸어... 밥 먹는 것, 샤워할 수 있게 되었지... 처음에는 개인 간병인이... 도와줬지... 치료받으면서... 할 수 있게 된 거지... 혼자서...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선생님들이 조언... 내가 노력... 좋은 결과가 나온 거지... 내 의지... 치료 선생님들의 의지... 조언... 중요하다고 느낀거지... 치료를 해봐야지... 자포자기를 하면 안 돼...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배우려고 하고 치료에 열심히 참여를 해야 나올 수 있어...

② 참여자 ‘희’의 구술 추출

i) 회복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혼자 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주는 것이다.

ii) 작업치료를 받아 회복의 기미를 느꼈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iii) 혼자서는 힘든 부분들을 치료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으며, 내 의지와 치료 선생님들의 의지와 조언이 중요하다고 느꼈다.

③ 연구자 언어

i) 작업치료로 인지 및 신체적 기능의 회복을 경험하며 독립적 역할 수행이 가능해졌다.

ii) 발병 후 자포자기 않고, 의지와 노력을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신념에 대한 중요성을 회복 과정을 통해 확인했다.

iii) 치료사의 의지와 조언이 중요함을 느끼며, 본인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신념이 형성되었다.

④ 언어-예술

‘회’의 회복 과정은 작업치료를 통해 인지 및 신체적 기능의 회복을 경험해 독립적 역할수행이 가능해져 본인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회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다.

마. 참여자 ‘조’의 이야기

참여자 ‘조’는 2013년 3월 3일 발병한 52세 뇌졸중 남성 환자로, 좌측 편마비(Lt. hemiplegia)로 진단받았다. 현재 간병인 없이 개인생활하고 있다. 그의 회복 과정은 독립성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하게 되는 과정이다.

① 참여자 ‘조’의 구술

회복이란... 아프기 전에 생활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지... 손이 회복이 됐으니깐... 세수나 간단한 빨래... 옷 입고 이불 개고... 혼자 안되는 게 얼마나 답답한데... 남한테 의지해야 되니까... 이제

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치료가.. 움직이게도 해주고.. 저런 것, 아픈 것 없어졌죠.. 절망적이었죠.. 나중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스스로가 좋아진 것을 느끼고..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처음.. 사람도 보기 싫고.. 가족들도.. 연락하고.. 그런걸 못했어.. 지금은 할 수 있죠..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처음에.. 운동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자전거도.. 배우는데 50번은 넘어졌어요..

② 참여자 '조'의 구술 추출

i) 회복은 아프기 전에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ii) 남한테 의지했었지만 손이 회복되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iii) 나중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절망적이었고 사람들과 가족까지 보기 싫었으나, 스스로 좋아진 것을 느끼고 마음에 여유를 찾아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③ 연구자 언어

i) 질병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이 사람들과 가족으로부터 스스로를 소외시켰으나, 회복 과정을 통해 마음에 여유를 찾았으며 일상으로의 복귀를 희망한다.

ii) 기능적 회복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독립성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④ 언어-예술

'조'의 회복 과정은 질병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으로 스스로를 소외시켰으나, 기능적 회복을 경험함으로써 마음에 여유를 찾아 일상으로의 복귀를 희망하며 독립성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하게 되는 과정이다.

바. 참여자 '복'의 이야기

참여자 '복'은 2011년 11월 30일에 발병한 55세 뇌졸중 남성 환자로 우측 편마비(Rt. hemiplegia)로 진단받았다. 현재 간병인 없이 개인생

활하고 있다. 그의 회복 과정은 긍정적인 회복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과정이다.

① 참여자 '복'의 구술

회복이 인지... 말... 기억력이 좋아지고 팔, 다리가...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게 회복이지... 몸이... 많이 회복됐고 그전에는 옆에... 간병인이... 도와줘야 하는데... 지금은 세탁도... 혼자 할 수 있게끔 재활되는 것이 좋은 거지... 팔도 아직 불편하긴 하지만 밥 먹는 거 오른쪽을 사용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글씨 쓰는 것도... 왼쪽밖에 못썼었는데 이제는 오른쪽으로도 빼뺨빼뺨하지만 조금 쓸 수 있게끔 됐고... 강직이 있고 제대로 잘 접어지지 않았었는데 많이 좋아진 게... 인지 좋아졌고 기억력이라든가 사람들을 알아보고... 계속해야지... 하면 할수록 좋아지니깐 영원히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게 재활이라고 생각해요...

② 참여자 '복'의 구술 추출

- i) 회복이 인지, 말, 기억력 좋아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게 회복이다.
- ii) 전에는 간병인이 있어야 했는데 지금은 혼자 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다.
- iii) 팔도 아직 불편하지만 밥 먹는 거나 글씨 쓸 때 오른쪽을 사용하려고 한다.
- iv) 재활은 하면 할수록 좋아지고 영원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③ 연구자의 언어

- i) 인지적&언어적 회복을 경험했다.
- ii)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어 환측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 iii) 스스로가 질병 상황을 수용하고 긍정적인 회복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④ 언어-예술

‘복’의 회복 과정은 인지적, 언어적 회복과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된 것이고 긍정적인 회복 의지를 가지고 끊임 없이 노력해야 하는 과정이다.

사. 참여자 ‘중’의 이야기

참여자 ‘중’은 2011년 4월 5일에 발병한 52세 뇌졸중 남성 환자로 좌측 편마비(Lt. hemiplegia)로 진단받았다. 현재 간병인 없이 개인생활 하고 있다. 그의 회복 과정은 회복에 대해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① 참여자 ‘중’의 구술

회복이란 앞으로의 남은 내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모든 거 하고 단절을 하고 사니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예전보다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한 거... 회복 단계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게... 선생님하고 치료할 때... 괜히 시키는 거 같아서 하는 척만 하고... 넘어 간거 같어... 지나고 보니 아니었어... 처음에 했으면 기초를 더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진작 깨달았으면... 더 열심히 했을 텐데... 진짜 사람마다 틀려가지고 힘들더라고 조금 후회가 되더라고 더 열심히 할 걸...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이지...

② 참여자 ‘중’의 구술 추출

i) 앞으로의 남은 내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 회복이다.

ii)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했다.

iii) 처음에 선생님하고 치료할 때 기초를 더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진작 깨달았으면 더 열심히 했었을 텐데 후회한다.

③ 연구자의 언어

i) 절망을 경험했고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회복이다.

ii) 세상과의 단절로 절망했지만 한계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회복

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화했다.

④ 언어-예술

‘중’의 회복 과정은 세상과의 단절로 절망했지만 회복에 대한 열망이 후회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아. 참여자 ‘제’의 이야기

참여자 ‘제’는 2012년 4월 20일에 발병한 46세 뇌졸중 남성 환자로 좌측 편마비(Lt. hemiplegia)로 진단받았다. 현재 간병인 없이 개인생활하고 있다. 그의 회복 과정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재활에 임하기를 바라는 과정이다.

① 참여자 ‘제’의 구술

정상적인... 80프로 몸 움직임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내 몸을 스스로 컨트롤하고... 어떤 치료도 기초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무리해서 될 일이 아니다... 작업치료받으면서... 팔 쓰는 거는 아직 둔하죠... 그런데도 등 때 타월 가지고 되고 예전에는 남들 도움받아야 하고... 지금은 내가 남들 못 따는 병따개도 따줘... 잡을 수 있으니깐... 엄청 좋아졌지... 나 나름대로 너무 급하게 마음가짐을 갖지 말고... 내가 낫는다는 생각과 이 정도의 병을 가졌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나는 감사하다... 누워있는 거보단 앉아 있는 게 낫고 앉아 있는 거보단 움직이는 게 낫고 그러다 보면 또 언젠가는 좋아지고 그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환자들이...

② 참여자 ‘제’의 구술 추출

i) 정상적인 몸 움직임 내 몸을 스스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태를 회복이라고 생각한다.

ii) 어떤 치료도 기초를 충실히 해야 하며 무리해서는 안 될 것이 운동이다.

iii) 예전에는 남들 도움받으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남들을 도와준다.

iv) 모든 환자들이 움직이고 또 언젠가는 좋아진다고 생각하며 생활 했으면 좋겠다.

③ 연구자의 언어

i) 기능적인 움직임의 상태를 회복이라고 생각한다.

ii) 기초에 충실하며 과도한 회복 의지는 오히려 부작용을 경험한다는 것과 동료 뇌졸중 환자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재활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iii) 작업치료를 통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해졌고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④ 언어-예술

‘제’의 회복 과정은 기초에 충실하며 과도한 회복 의지를 버리고 타인을 도와주는 자신의 모습에서 가능성을 느끼고 다른 뇌졸중 환자들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재활에 임하기를 바라는 과정이다.

자. 참여자 ‘유’의 이야기

참여자 ‘유’는 2012년 3월 20일에 발병한 61세 뇌졸중 여성 환자로 우측 편마비(Rt. hemiplegia)로 진단받았다. 현재 공동간병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녀는 회복 과정은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과정이다.

① 참여자 ‘유’의 구술

옛날이랑 비교해서 다리도 팔도 지금은 움직일 수 있잖아요... 작년에는 난 아무것도 못했어... 치료를 잘 해줘가지고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가지고... 손이 많이 보드라와졌어... 운동을 알려주잖아... 나 혼자라도 할 수 있게 목욕할 때도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좀 하지... 어느 부분에서 도움을 조금 덜 받는다는 거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거지... 팔다리만 나오면 바랄 것이 없지... 사람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으니깐 지금은 다 하잖아요... 근데 낫는 거 이상 더 소원이 없어요... 병원에서

나가서 욕심을 부릴망정 집에 가는 것이지... 지금 팔은 다리도 걸음마도 날마다 좋아지고 다 좋아요..

② 참여자 '유'의 구술 추출

i) 옛날이랑 비교해서 많이 회복되었다.

ii) 목욕할 때 나 혼자 하는 부분이 생겨 도움을 덜 받는다는 거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iii) 다 나아서 병원에서 나가서 집에 가는 것이 소원이다.

③ 연구자의 언어

i) 작업치료를 통해 일부분의 일상생활에서 독립적인 움직임을 경험하게 되었다.

ii) 발병 초 과거와의 변화에 대해 회복의 경험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다.

iii) 더 빠르고 완전하게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열망과 욕심이 있다.

④ 언어-예술

'유'의 회복 과정은 발병 초와의 변화됨을 느끼고 작업치료를 통해 일부분의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경험하였지만 더 빠르고 완전하게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과정이다.

2) 핵심개념의 발견적 해석

뇌졸중 입원 환자의 작업치료를 인한 회복 과정 체험의 핵심 개념을 파시의 인간되어감 이론과 관련지어 구조적 전환을 하였다. 참여자의 종합적인 언어-예술에서 도출한 4개의 핵심 개념을 하나의 회복 과정 체험 구조로 통합하여 표현하면 뇌졸중 입원 환자의 작업치료를 인한 회복 과정 체험은 작업치료를 통한 기능적 회복, 독립적인 일상생활, 긍정적 마인드로 변화,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와 노력이다로 확인되었다. 참여자의 종합적 언어-예술에서 추출된 회복 과정 체험의 핵심 구

<표 2> 참여자들의 종합적 언어 예술(language-arts)

참여자	언어-예술(language-arts)
‘예’	‘예’의 회복 과정은 통증 완화와 기능적 회복을 경험함으로써 자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독립적인 삶으로의 복귀를 위한 작업치료의 동기가 강화되는 과정이다.
‘순’	‘순’의 회복 과정은 손 기능의 호전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져 홀가분하지만, 신체적 기능의 회복보다는 자기성찰을 통해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과정이다.
‘준’	‘준’의 회복 과정은 작업치료를 통해 사회에 참여하게 되어 구직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며 사고방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이다.
‘희’	‘희’의 회복 과정은 작업치료를 통해 인지 및 신체적 기능의 회복을 경험해 독립적 역할수행이 가능해져 본인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 회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다.
‘조’	‘조’의 회복 과정은 질병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으로 스스로를 소외시켰으나, 기능적 회복을 경험함으로써 마음에 여유를 찾아 일상으로의 복귀를 희망하며 독립성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하게 되는 과정이다.
‘복’	‘복’의 회복 과정은 인지적, 언어적 회복과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가능하게 된 것이고 긍정적인 회복 의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과정이다.
‘중’	‘중’의 회복 과정은 세상과의 단절로 절망했지만 회복에 대한 열망이 후회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제’	‘제’의 회복 과정은 기초에 충실하며 과도한 회복 의지를 버리고 타인을 도와주는 자신의 모습에서 가능성을 느끼고 다른 뇌졸중 환자들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재활에 임하기를 바라는 과정이다.
‘유’	‘유’의 회복 과정은 발병 초와의 변화됨을 느끼고 작업치료를 통해 일부분의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경험하였지만 더 빠르고 완전하게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하는 과정이다.

조를 생생한 체험의 구조로 전환시키면 ‘뇌졸중 입원 환자의 작업치료로 인한 회복 과정 체험은 환측의 기능 향상을 통해 독립성이 증진되어 정신적 성장을 하면서 희망과 끈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로 나타났다. 발견적 해석의 결과인 4개의 핵심 개념을 구조적으로 전환해 개념적으로 통합시키면 ‘뇌졸중 입원 환자의 작업치료로 인한 회복 과정 체험은 상상화, 가치화하면서 변형성과 강화성의 인간되어감 과정이었다.’로 정리할 수 있다. 은유적 드러남은 “컴퓨터를 켜는데... 왼손이 안되니까 짜증 나는 거죠.. 그때 느꼈죠.. 작업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왼손이 얼마나 좋아져야 되는지...”(참여자 ‘준’)이었다. 예술적 표현은 도중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으로 뇌졸중 회복 과정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희망을 표현해 보았다.

<표 3> 핵심개념의 발견적 해석

핵심개념	구조적 전환	개념적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치료를 통한 기능적 회복 • 독립적인 일상생활 • 긍정적 마인드로의 변화 •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와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측의 기능 향상 • 독립성 • 정신적 성장 • 희망과 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상화 • 가치화 • 변형성/강화성 • 강화성
구조		
뇌졸중 입원 환자의 작업치료를 통한 회복 과정 체험은 작업치료를 통한 기능적 회복, 독립적인 일상생활, 긍정적 마인드로 변화,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와 노력이다.		
구조적 전환		
뇌졸중 입원 환자의 작업치료를 통한 회복 과정 체험은 환측의 기능 향상을 통해 독립성이 증진되어 정신적 성장을 하면서 희망과 끈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개념적 통합		
뇌졸중 입원 환자의 작업치료를 통한 회복 과정 체험은 상상화, 가치화하면서 변형성과 강화성의 인간되어감 과정이었다.		
은유적 드러남		
“컴퓨터를 켜는데... 왼손이 안되니까 짜증 나는 거죠... 그때 느꼈죠... 작업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왼손이 얼마나 좋아져야 되는지.”		
예술적 표현		
흔들리며 피는 꽃 도중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참여자의 구술에서 추출한 핵심 개념으로 뇌졸중 입원 환자의 작업치료를 통한 회복 과정 체험의 구조를 서술적으로 종합한 체험의 내용은 <표 3>과 같다.

4. 결론 및 제언

참여자의 구술을 근거로 하여 연구 결과 도출된 파시의 ‘인간되어감 방법론’에 따른 뇌졸중 입원 환자의 작업치료를 통한 회복 경험 의미에 대한 핵심 개념에 관한 발견적 해석, 예술적 표현, 은유적 드러남에 대

해 다음과 같이 논의를 하고자 한다.

회복 경험의 핵심 개념에 대한 발견적 해석은 총 4가지로 1) 작업치료를 통한 기능적 회복, 2) 독립적인 일상생활, 3) 긍정적 마인드로의 변화, 4)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와 노력으로 나타났으며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작업치료를 통한 기능적 회복에 관하여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작년에는 아무것도 못했어... 지금은 손이 많이 보드라와졌어...(참여자 유), 팔 통증이 없어지면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한 거지...(참여자 예), 손 자체가 제한이... 그러다가 혼자 하나까...(참여자 순), 키보드를 왼손으로 칠 수 있을 때... 작업치료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향을 줬죠...(참여자 준)”라고 말하며 발병 후 6개월 이상으로 지속적인 작업치료를 통해 기능적 회복을 경험하였다. 이들이 겪은 회복의 경험은 뇌졸중 후 지속적인 작업치료는 기능의 호전을 보이며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선행 연구의 보고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Ahn & Kim, 2008).

두 번째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관하여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뇌졸중으로 인한 신체적 불편함이 일상생활조차 버거웠지만 작업치료를 통해 기능적 회복을 경험하고 그 결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전에는 옆에... 간병인이... 도와줘야 하는데... 지금은 세탁도... 혼자 할 수 있게끔...(참여자 복), 예전에는 남들 도움 받아야 하고... 지금은 내가 남들 못 따는 병따개도 따 줬...(참여자 제), 목욕할 때 내가 좀 하지... 도움을 덜 받는다는...(참여자 유), 남한테 도움 받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있고...(참여자 예), 손을 쓸 수 있게 되니까... 남한테 의지 안 하고...(참여자 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주는 거지... 혼자... 할 수 있으니까...(참여자 희)”라고 말하며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경험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다시 한 번 독립성에 대한 가치를 중요시하게 되는 결과를 도출하였

다. 뇌졸중을 경험한 대부분의 환자들이 겪는 문제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심리적 문제까지 동반되어 삶의 질 저하를 나타내고 있다(이영애, 2001). 따라서 작업치료로 인한 회복 과정의 경험을 통해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일상생활의 복귀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게 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세 번째로 긍정적 마인드로의 변화에 관하여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예전보다는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한 거...(참여자'중'), 미진한 점을 나으면 개선하겠다는 정신적 성장...(참여자'순'), 자포자기를 하면 안돼...(참여자'희)’”라고 말한다. 이렇듯 예전 같지 않은 몸에서 벗어나 기능의 회복을 보이는 상황에서 질병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 세상과의 단절로 인한 절망감 등 회복에 대한 열망이 후회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화하면서 희망을 품고 건강을 다 잡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네 번째로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와 노력에 관하여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낫는 거 이상 더 소원이 없어요...(참여자'유'), 치료가 기다려진다는 거야...(참여자'순'), 자신이랑... 스스로 싸우는 과정...(참여자'준'), 배우려고 하고 치료에 열심히 참여를 해야...(참여자'희'), 운동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자전거도... 배우는데 50번은 넘어졌어요...(참여자'조)’”라고 말하며 회복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설명하고 있다. 그 의지와 노력이 희망과 끈기로 구조적 전환을 하였고, 희망은 회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근본적인 힘으로 누구에게나 존재한다고 설명한다(Miller, 2007). 희망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갈등이 표면화되고 갈등을 통하여 인간이 견해를 분명히 밝히는 힘을 얻을 때 강화성으로 변형되어간다고 하였다(김정아, 2010). 진심으로 함께 해주는 너와 나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을 연구자에게 털어놓음으로써 새로운 힘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은 참여자 대부분이 뇌졸중 회복이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지 않았으나, 회복을 경험하고 난 후 자

신의 장애에 대한 수용이 높아져서 나온 결과라고 사료된다. 환자들이 치료사에게 바라는 점이나 기대, 또는 제시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있지 않다는 것 또한 이 연구의 제한점이다. 앞으로 진행될 연구에서는 뇌졸중 입원 환자들이 경험하는 회복 의미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도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작업치료사으로써 더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입원 환자만으로 제한을 두지 않고 포괄적인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뇌졸중을 경험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원치 않은 신체적 장애로 인해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받으며 살고 자신의 삶에 대한 변화로 인해 고통을 경험한다(남선영, 1998). 그 과정 속에서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며 장애로부터 회복을 경험함으로써 희망을 품고 끈기를 가지고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뇌졸중 입원 환자의 작업치료로 인한 회복 과정 체험을 통해 참여자들은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기능적 회복을 통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화되어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참여자는 연구자와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 기능 회복을 통한 미래의 희망을 품고 독립적인 삶을 계획하는 등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연구자 역시 이 과정을 통해 참여자의 고통을 이해하며 미래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깨달았으며, 한계를 뛰어넘어 초월하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변화된 삶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매일의 삶 속에서 가능성을 체험하고 있는 이러한 패턴을 삶의 한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작업치료사로서 환자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가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뇌졸중 환자들의 작업치료로 인한 회복 과정 체험을 이해함으로써 뇌졸중을 가진 대상자의 내면을 발전시키고 작업치료사로서 그들이 원하는 치료적 방향을 위해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파시의 인간되어감과 작업치료 분야를 접목시키면서 작업치료사로서 뇌졸중 환자들의 관점에서 바라

보며 질적이고 심리적인 부분 또한 접근할 수 있는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 참고문헌 ■

- 강현입 · 이순영 · 성명숙. 2009. “중년기 뇌졸중 남자환자의 회복과정.” 『질적연구』 10(2): 152-165.
- 김정미. 2010. “말기 암환자의 희망체험-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 방법론적용.”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남선영. 1998. “뇌졸중 환자의 질병경험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8(2): 479-489.
- 이상운 · 이경희. 2003. “정신분열병 환자의 삶의 체험-Parse의 연구방법론.” 『정신간호학회지』 12(2): 204-215.
- 이영애. 2001. “뇌졸중 환자의 재활 경험.” 『한국재활간호학회지』 4(1): 20-30.
- 이옥자 · 최영숙. 2007. “만성정신분열병환자 가족의 체험-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론 적용.” 『대한간호학회지』 37(1): 26-34.
- 위옥연. 2004. “혈액투석 환자의 체험-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론 적용.” 석사학위논문. 건양대학교.
- 조영남. 2005.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의 경상운동 출현 유무 및 정도에 따른 상지기능 특성비교.”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파시(Parse, R. R). 2002. 『인간되어감 이론』. 이정숙 · 이옥자 · 고명숙 역. 현문사.
- 패짓 · 데보라(Padgett. & K. Deborah). 2005.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유태균 역. 나남.
- 하주영 · 박형숙 · 이상주 · 진정해 · 조호운 · 지영주. 2010. “청장년층 뇌졸중환자의 회복 경험.” 『성인간호학회지』 22(3): 342-351.

- Ahn, N. Y. & K. J. Kim. 2008. "Effects of therapeutic exercise for stroke patients." *Health & Sports Medicine* 10(2): 45-54.
- Carr, J. H. & R. B. Shepherd. 2003. "Stroke rehabilitation: Guidelines for Exercise and Training to Optimize Motor Skill." Newton, MA: Butterworth-Helenemann.
- Dijkerman, H. C., M. Ietswaart, M. Johnston & R. S. Macwalter. 2004. "Does motor imagery training improve hand function in chronic stroke patients: A pilot study." *Clinical Rehabilitation* 118(5): 538-549.
- Johansson, Barbro. 2000. "Brain plasticity and stroke rehabilitation: The willis lecture." *Stroke* 31: 223-230.
- Lang, C. E., Wagner, J. M., Bastian, A. J., Hu, Q., Edwards, D. F., Sahrman, S. A., & A. W. Dromerick. 2005. "Deficits in grasp versus reach during acute hemiparesis." *Experimental Brain Research* 166(1): 126-136.
- Lee, S. Y. & K. H. Lee. 2002.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 in domestic and outside applied Parse's human becoming theor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1(1): 43-61.
- Luke, C., K. J. Dodd & K. Brock. 2004. "Outcomes of the Bobath concept on upper limb recovery following stroke." *Clinical Rehabilitation* 18(8): 888-898.
- Madden, S., W. M. Hopman, S. Bagg, J. Vernet & C. J. Challaughan. 2006. "Functional status and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during inpatient stroke rehabilitation."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Medicine & Rehabilitation* 85(10): 831-838.
- Miller, Judith. 2007. "Hope: A construct central to nursing." *Nursing Forum*. 42(1): 12-19.

- Nichols-Larsen, D. S., P. C. Clark, A. Zeringue, A. Greenspan & S. Blanto. 2005. "Factors influencing stroke survivors quality of life during subacute recovery." *Stroke* 36(7): 1480-1484.
- Parse, Rosemarie. 1992. "Human becoming: Parse's theory of nursing." *Nursing Science Quarterly* 5: 35-42.
- _____. 2001a. *Qualitative Inquiry: The Path of Sciencing*. Sudbury: Jones & Bartlett.
- _____. 2001b. "The lived experience of contentment: A study Using the Parse Research Method." *Nursing Science Quarterly* 14(4): 330-338.
- _____. 2005. "The humman becoming modes of inquiry: Emerging science." *Nursing Science Quarterly* 18(4): 297-300.
- _____. 2006. "Feeling Respected: A Parse Method Study." *Nursing Science Quarterly* 19(1): 51-56.
- _____. 2011. "The Human becoming Modes of Inquiry: Refinements." *Nursing Science Quarterly* 24(1): 11-15.
- Shumway-Cook, A. & M. H. Wollacott (3th Eds.). 2006. *Motor control: translating research into clinical practice*. Philadelphi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Wolf, S. L., P. A. Catlin & M. Ellis. 2001. "Assessing wolf motor function test as outcome measure for research in patients after stroke." *Stroke* 32(7): 1635-1639.
-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2007. *The top ten causes of death.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박민경은 건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 주주이동발달센터의 작업치료사로 일하고 있다.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노인 운전자의 위험요소 예측 및 인지평가도구에 대한 메타분석", "장애청소년의 장애 수용을 통한 회복 과정 체험: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 등의 논문이 있다.

송아영은 건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 중이며, 현재 유성웰니스재활전문병원의 작업치료사로 일하고 있다. “Meta-analysis about cognitive intervention effect applied to dementia patients”, “DACUM 직무분석을 통한 ‘연하재활’ 교과목 개발연구”, “뇌졸중 환자를 위한 한국형 지역사회 통합 설문지(Korean-translated Version of Community Intergration Questionnaire; K-CIQ)의 타당도 및 신뢰도 연구” 등의 논문이 있다.

김수경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건양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부교수로 일하고 있다. “전래동화 플래시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작업중심의 회상치료가 치매환자의 인지기능과 상호작용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뇌졸중 환자의 여가동기와 참여제약이 여가 활동수준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neurofeedback training on concentration in children with attention deficit / Hyperactivity disorder” 등의 논문이 있다.

[2016. 1. 18. 접수; 2016. 10. 7 수정; 2016. 10. 10. 채택]